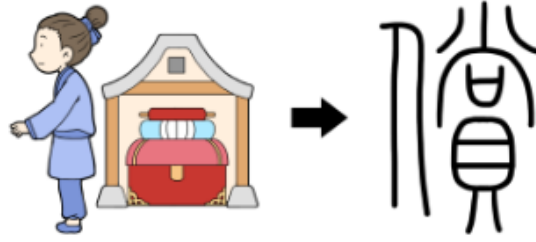


3(2)
-
221

회의문자 ①



償

값을 상

償자는 '값다'나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償자는 人(사람 인)자와 賞(상줄 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賞자는 궁궐에서 재물을 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상주다'나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상주다'라는 뜻을 가진 賞자에 人자가 더해진 償자는 '공을 세우고 선행을 베푼 사람은 상으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償자에서 말하는 '값다'나 '돌려주다', '보상'이라는 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을 되돌려 준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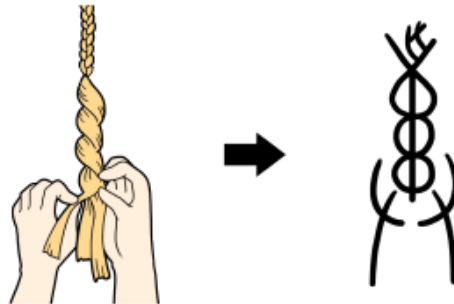
소전

償

해서

3(2)
-
222

회의문자 ①



索

찾을 색
|
노[새끼
줄] 삭

索자는 '꼬다'나 '새끼줄', '찾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索자는 '꼬다'나 '새끼줄'을 뜻할 때는 '삭'이라고 하지만 '찾다'나 '더듬다'라고 할 때는 '색'으로 발음한다. 索자의 갑골문을 보면 꼰이 갈라진 실타래 양옆으로 손이 攴(비비)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끼줄을 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索자의 본래 의미는 '꼬다'나 '새끼줄'이었다. 새끼줄은 빗짚을 양손으로 잡고 비비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비비는 동작이 마치 무언가를 더듬어 찾는 모습을 연상케 했는지 후에 '더듬다'나 '찾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索

갑골문

索

금문

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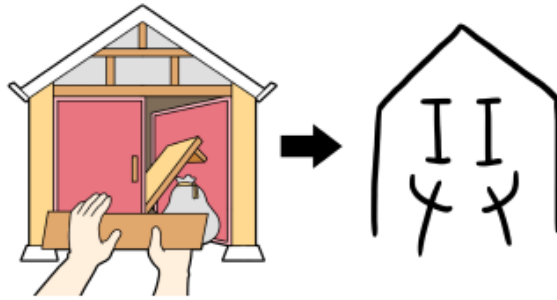
소전

索

해서

3(2)
-
223

회의문자 ①



塞

막힐 색
| 변방
새

塞자는 '변방'이나 '요새', '보루'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塞자를 보면 집처럼 생긴 상자 안에 죽간(竹簡)을 넣고 있는 廾(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보관함에 물건이 꽂 들어차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塞자의 본래 의미는 '막혔다'나 '쌓였다'이다. 塞자는 후에 土(흙)자가 더해지면서 '변방'이나 '보루'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놓은 구축물이라는 뜻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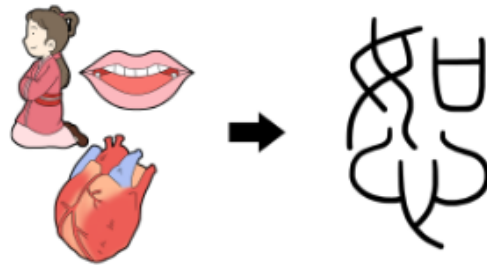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24

회의문자 ①



恕

용서할
서:

恕자는 '용서하다'나 '동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恕자는 如(갈을 여)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如자는 남자 말에 순종하는 여자를 그린 것이지만 '~와 같다'나 '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心(마음)자가 결합한 恕자는 '마음(心)과 마음(心)을 갈게(如)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을 갈게 한다는 것은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恕자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용서하다'나 '인자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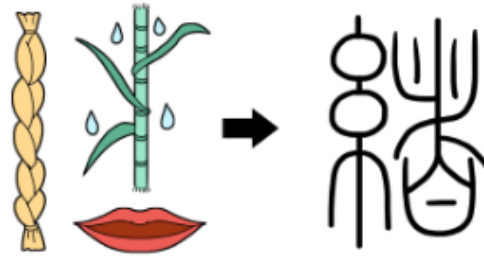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25

형성문자 ①



緒

실마리
서:

緒자는 '실마리'나 '시조', '계통'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緒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者(놈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者자는 '놈'이나 '장소'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緒자는 실타래에 있는 한 가닥의 실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실타래는 수많은 실을 뭉쳐 만든 것이지만 緒자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한 가닥의 실을 뽑아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실마리'나 '찾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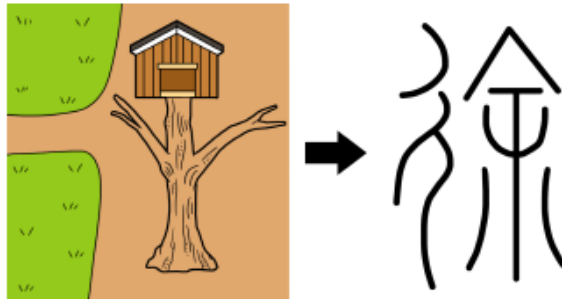
소전

緒

해서

3(2)
-
226

회의문자 ①



徐

천천할
서(·)

徐자는 '천천히 하다'나 '평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徐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余자는 나무 위에 지어진 집을 그린 것으로 '나'나 '나머지'라는 뜻이 있다. 徐자는 이렇게 '나머지'라는 뜻을 가진 余자에 彳자를 결합한 것으로 '천천히 걷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徐자는 余자에 있는 '나머지'라는 뜻을 '여유'로 해석해 '길을 천천히 걷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徐자는 쓰임이 적어 간혹 지명이나 인명에 서만 볼 수 있는 글자이다.

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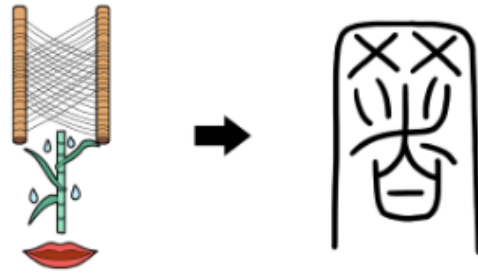
소전

徐

해서

3(2)
-
227

형성문자 ①



署

마을[官廳] 서:

署자는 '관청'이나 '부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署자는 网(그물 망)자와 耒(농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耒자는 사탕수수줄을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자→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署자는 나랏일을 돌보는 '관청'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관청'을 뜻하는 글자에 网자가 쓰인 것은 나랏일은 열기설기 얽힌 여러 방면의 일을 처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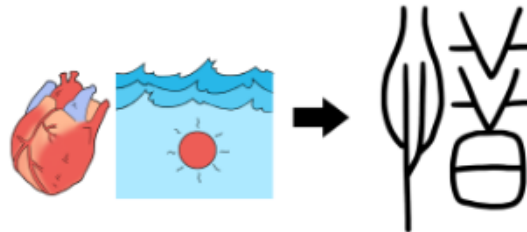
소전

署

해서

3(2)
-
228

회의문자 ①



惜

아낄 석

惜자는 '아끼다'나 '아깝다', '애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惜자는 心(마음 심)자와 惜(예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惜자는 고대에 있었던 큰 홍수를 뜻하는 글자로 해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惜자는 이렇게 큰 피해가 있던 대홍수를 뜻하는 惜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애석하다'나 '애처롭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惜자는 오래 전에 있었던 큰 피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은 글자라 할 수 있다.

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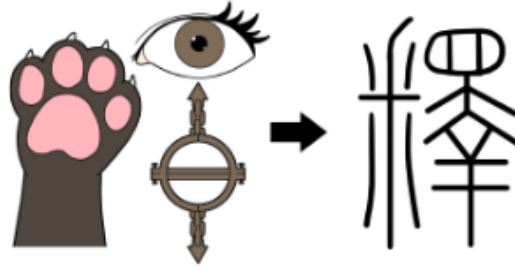
소전

惜

해서

3(2)
-
229

회의문자 ①



釋

풀 석

釋자는 '풀다'나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釋자는 采(분별할 변)자와 睪(엿볼 역)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睪자는 노예를 감시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엿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釋자는 이렇게 감시하거나 선별하는 것을 뜻하는 睪자에 동물의 발자국을 그린 采자를 결합한 것으로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식별이 가능함을 뜻하고 있다. 사냥하는 사람들은 땅 위에 찍힌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釋자는 어떠한 사물을 보면 능히 알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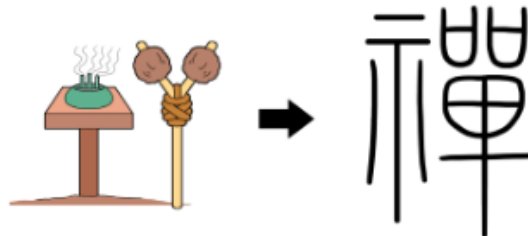
소전

釋

해서

3(2)
-
230

회의문자 ①



禪

선 선

禪자는 '좌선'이나 '선종', '양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선종'이란 불교의 한 종파를 말하고 '양위하다'는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 禪자는 示(보일 시)자와 單(홀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單자는 사냥도구의 일종을 그린 것으로 '홀로'라는 뜻을 갖고 있다. 禪자는 본래 고대왕가에서 산천의 신에게 지내던 제사를 뜻했던 글자였다. 제례를 뜻하는 글자에 單자가 쓰인 것은 왕이 홀로 지내던 제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부터 禪자는 번뇌를 끊고 홀로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좌선(坐禪)을 뜻하게 되었다.

禪

소전

禪

해서